

## 미국 내 난민 사역

- 이축복 선교사

2015 년 9 월 시리아 난민을 유럽에서 받기 시작하면서 아프간도 난민대열에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불의 각 가정에서는 제일 똑똑한 아들을 대표로 난민으로 보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그 나라를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전에도 아프간에 살면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미군들의 숫자를 계속 줄여나갔었습니다. 아프간에 이슬람 공화정치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부정부패가 심했고, 군인이나 경찰들도 기회가 되는대로 탈레반들과 손을 잡고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공화정치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34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고 실권은 각 종족의 족장들이 갖고 있어서 족장제도와 같은 시스템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종족과는 결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정부는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2021 년 8 월 미군이 철수하자 의외로 탈레반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 졌고,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 또 정치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탈레반들에게 숙청대상 1 호였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제가 아프간에 있을 때에도 외국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탈레반들로부터 죽이겠다는 편지를 자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위해 통역관으로 일한 사람들, 정부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을 우선해서 비행기에 태워 아부다비, 카타르나, 파키스탄 등 여러 곳에 난민으로 옮겨 놓고 지금까지 서류가 진행 되는대로 미국입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 년 아프간을 탈출한 선교사들 중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아프간 난민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협력하고 있는 이곳은 아프간 난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미국 기독교 봉사 단체 소속의 많은 선교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페르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ESL 기초영어 Class 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전직 선생이었던 분들, 변호사들인데,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Linguistic Master Degree 를 따기 위해 공부까지 하면서 자원 봉사를 하며 섬기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assist 하면서 통역으로 선생님들과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공부를 하러 오지만, 저들의 모습속에는 사랑받지 못한 모습,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프간, 아프리카, 시리아 등 여러 난민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 주며 저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일 때면 서로 기뻐하지요.

몇 일전 미얀마에서 온 젊은 엄마가 영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등록이 안되었다고 쫓겨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매 N 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ESL class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N 이 저를 보며 자신은 딸 1 명과 싱글 맘으로 1 주일 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입구에서 저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이렇게 혼자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싱글맘인지 몰랐는데 다음에는 그 집 주소를 알아서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들은 어려움들을 제게 호소합니다. 직업 찾거나, 학교를 찾고, 필요한 물건들 (Baby car seat, 부엌용품, 옷, 음식)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방과 후 저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방문하며 기도해주고, 주일에는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협력하는 이 단체의 핵심 성경구절은, **마 25: 35 -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섬기는 과정을 통해 기회가 되는대로 자원봉사자들은 자연스럽게 난민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동안 닫혀 있던 10/40 window 를 이제는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로 옮겨 열어놓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이신 하나님은 원대하신 계획에 따라 무슬림들을 흩어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콩고, 르완다, 남수단 등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 옆으로 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난민으로 오면서도 전세계를 이슬람화 하려는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한 가족이 난민으로 와서 자리를 잡으면 가족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서 숫자로 승부를 보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 11-12)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기도로 사랑의 섬김으로,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6.2023